

미국 ‘제1세대 한국학자’의 해방 전후 한국 인식

— 조지 맥아피 맥쿤의 *Korea Today*를 중심으로 —

김서연*

〈차 례〉

1. 머리말
2. 전후 시기 맥쿤의 한국 관련 활동
3. *Korea Today*에 나타난 맥쿤의 한국 인식
4. 미국 학계에서 *Korea Today*의 의의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조지 맥아피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의 저서 *Korea Today*에 나타난 그의 한국 인식을 다룬다. 맥쿤은 종전 후 자신의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학계에 ‘제1세대 한국학자’로서 정착하고자 했다. 맥쿤은 전쟁 전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환기하려 노력했다. 미국의 지역연구 흐름에서 한국에 대한 수요나 관심은 낮았지만, 맥쿤은 한국학자로서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그는 국무부 극동국에 한국문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으며, 모교 버클리대학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3년 동안 한국사·극동외교사·한국어 등을 강의했다. 또한 극동 관련 학술지(FEQ, FES, PA)에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많은 글을 투고했다. 한편 그는 1882년 체결된 조·미 수교 관련 자료를 해제하기도 했다. *Korea Today*의 집필 및 출판은 단지 맥쿤의 개인적 연구 경력뿐만 아니라 1940년대 미국 제도권 학계가 지역연구에 보인 관심과 맞물려있었던 것이다.

*Korea Today*는 일종의 한국 관련 자료집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해방 후 남북한의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경제적 상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만 책의 구조상 남·북한의 대칭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남한의 상황과 미군정의 정책 분석이 서울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소련 및 북한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내용이 다소 불균형해진 점은 ‘미국 지식인’으로서 맥쿤이 마주한 한계였다. 맥쿤은 일제 식민통치의 경제적 착취성을 전제로 하되 한국 정치의 낙후성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선교사 출신들이 한국 정치의 분열성을 한국인의 기질과 연관시켜서 분석했다면 맥쿤은 이를 능력의 부재가 아닌 경험 부족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반도에 수립될 정치·경제체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도입 후 산업화로의 이행 및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하며 미국 제도권 학계 지식인의 면모를 보였다. 한편 맥쿤은 한국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한국인들에 대한 그의 심정적 공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Korea Today*는 한국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1950년대 초반에 발간되어 사람들의 흥미를 제고시켰으며, 한국학 연구의 공백을 메웠다. 또한 사료의 활용·검증 측면에서 ‘한국 전문가가 쓴 역사 개론서’라는 위상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 *Korea Today*의 간행은 미국 한국학의 출발 시점이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1950년 초에서 2차대전 종료 직후로 당겨짐을 시사한다.

맥쿤의 한국 인식은 미국 제도권 지식인의 사고와 한국·한국인에 대한 심정적 동조가 혼재되어있는 다층적 면모를 보인다. 맥쿤의 한국 인식의 특수성이 유년기 한국 경험에서 나온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맥쿤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다른 ‘제1세대 한국학자’들의 한국 인식도 함께 살펴봐야 더욱 포괄적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기존 친한·반한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맥쿤과 같은 인물들이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주제어] 조지 맥아피 맥쿤, 지역연구, *Korea Today*, 극동학, 한국학

1. 머리말

이 글은 조지 맥아피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의 저서 *Korea Today*에 나타난 그의 한국 인식을 다룬다. 맥쿤은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선교사 윤산온(尹山溫, George Shannon McCune, 1873~1941)의 자녀로, 유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후 미국에서 한국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태평양전쟁기 미국 정부 기관의 한국 전문가로 채용되었고, 실무적 차원에서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한국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했다. 종전 후 그는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한국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저술들을 발행하며 미국 학계에 ‘제1세대 한국학자’로

서 정착하고자 했다.

한국학의 수요를 고려할 때, 미국 학계에서 '한국학자'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았다.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Area Studies)에서 한국에 대한 흥미는 다른 동북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낮았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줄곧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냉전의 전개에 따른 한국의 상황 변동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직결되지는 않았다. 충분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유지 가능한 지역연구에서 한국학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협소했다. 그러나 맥쿤은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한국학자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했고, 그 꾸준한 학문적 시도의 결산이 *Korea Today*다.

맥쿤은 1947년 *Korea Today*의 초고를 완성했으나 출판하지 못하고 이듬해 사망하였고, 그의 부인 이블린 맥쿤(Evelyn B. McCune)과 동료 아서 그레이(Arthur L. Grey)가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해 1950년 간행하였다.¹⁾

*Korea Today*는 '한국 전문가'가 집필한 최초의 영문 한국 연구서이다. 따라서 이 책의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는 작업은 전후 미국 학계의 한국학 동향을 의미 있게 그려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한국을 바라보는 맥쿤의 특수한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맥쿤이 한국 전문가로서 갖는 특수성을 볼 때 *Korea Today*의 연구 이유는 더 명확해진다. 맥쿤과 같이 한국 경험이 있는 미국 지식인들의 한국 인식은 전쟁 전 미국의 극동 연구자들의 견해와 그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 중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서한에도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심정적 지지·이해가 동반되었다. 특히 맥쿤은 미국의 세계 체계 모니 확대라는 전후의 보편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순응했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욕구 역시 분명히 드러났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한국인들의 이익'이 늘 같은 방향을 향하지는 않았는데, 두 영역이 불일치할 때 맥쿤이 비판이 미국의 정책을 향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1) McCune, George M, *Korea Toda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vii.

따라서 *Korea Today*에 기술된 맥쿤의 주장을 통해 전후 ‘제1세대 한국학자’의 시각의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후 미국의 한국학을 논할 때 *Korea Today*가 가지는 의의가 상당한데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Korea Today*를 중심 주제로 다루거나,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고찰한 연구는 굉장히 소략하다. 이는 책의 가치와는 별개로, 저자 맥쿤에 대한 인지도가 그의 이른 사망으로 인해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Korea Today*를 비롯한 맥쿤의 저술들은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발전 혹은 미국 한국학의 형성·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고정휴(2004)·김경일(2003)·김점숙(2005)·조지형(200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²⁾ 그러나 *Korea Today*에 대한 총체적 분석은 진행된 바 없으며, 맥쿤의 생애와 활동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안종철(2004·2009)·양기선(1985)·김서연(2016)³⁾의 연구에서도 역시 *Korea Today*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Korea Today*의 내용 분석을 통해 맥쿤의 한국 인식과 그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맥쿤이 전후 학계에서 한국학자로서 보인 활동을 배경적 차원에서 서술하고, 3장에서 본격적으로 *Korea Today*의 저술 동기 및 핵심 사료, 내용을 살펴 맥쿤의 한국 인식을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Korea Today*가 미국 학계에서 한국학 도서로서 갖는 사학사적 위상을 검증하겠다. 이 과정에서 전후 미국 제도권 학계에서 한국학이 점유한 위치 및 그 특수성이 더 잘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이 글에서 이용한 핵심 1차 자료들은 *Korea Today*(1950)를 비롯한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자료들인 McCune-Becker Collection, George McAfee McCune Papers, Box 19·20·29·33·38과 Unclassified

2) 고정휴, 「A. J. 그라즈단제브와 《현대한국》」, 『한국사연구』 126, 2004;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사회와 역사』 4, 2003; 김점숙, 「해방 이후 미국 지식인의 한국 인식」, 『역사와 현실』 58, 2005; 조지형,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흐름과 전망」, 『미국사연구』 15, 2002.

3) An, Jong-Chol, “Making Korea Distinct : George M. McCune and His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7, 2004; 안종철,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조지 M. 맥쿤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2009; 김서연, 「조지 맥아피 맥쿤(George McAfee McCune)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사연구』 181, 2018.

Collection, Donated by Heather Thompson, Box 4이다.

2. 전후 시기 맥쿤의 한국 관련 활동

전쟁기 맥쿤은 OSS·극동국에서 근무하며 재미한인과 해당 기관을 연결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한국문제의 중요성과 비교할 때 한국 전문가의 수가 적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전쟁기 맥쿤과 같이 채용되었던 선교사 자녀 웨임스(Clarence N. Weems Jr.)나 그의 동생 새넌(Shannon B. McCune) 등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국무부에서 한국·한국인들과 교섭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따라서 한국 관련 부서·인력에 투자가 적었다. 맥쿤 역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가 종전 후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 이유는, 한국에 무관심하거나 모호한 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태도가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낮은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맥쿤은 한국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전후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훼손할 것을 우려했다.⁴⁾

맥쿤은 국무부 극동국에 한국문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국무부 극동국장 파아(Charles B. Fahs)⁵⁾와 일본·한국 경제부서 담당자 마틴(Edwin M. Martin)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국무부에는 맥쿤의 장기적 기획을 받아들일 만한 자리나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⁶⁾ 미국의 전후 구상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4) October 2, “Korea and American Policy”, 1943, 국가보훈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재미한인자료』 上, 2005, 22쪽.

5) 찰스 파아(Charles B. Fahs, 1908~1980)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 관심사는 극동지역이었다. 그는 1934년부터 1936년까지 도쿄와 교토의 제국대학에서 각각 1년씩 머무르며 일본어를 공부하였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COI 극동국에 채용되어 1945년 극동국장에 부임하였다. 이후 캘리포니아 포모나 칼리지에 재직했다.

6) 『George McCune to Edwin Martin(Department of State)』(1946.3.16); 『Martin to McCune』

낮은 비중을 짐작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한편 전쟁 시기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인력들은 전쟁 수행에 대거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지역연구 프로그램들이 생성되었다.⁷⁾ 그중 많은 수는 종전 후 사라졌으나, 학계와 학술 재단은 해당 프로그램들을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를 확대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다.⁸⁾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동등하지는 않았다. 한국에 대한 수요는 중국·일본과 비교했을 때 인지도·관심·전공자 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⁹⁾ 지역연구의 위계는 1945년 록펠러재단이 주관한 인문학 전후장학금(Postwar Fellowship) 수여자 명단에서 잘 드러난다. 선정된 15명 중 한·중·일 전공자의 비율은 각각 1명·8명·2명이었다.¹⁰⁾ 즉 11명 중 1명만이 한국 전공자였다는 것인데, 그나마 이는 록펠러재단이 전쟁 중 중동·아시아지역 언어교육 부문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결과였다.

1) 미국 대학 내 최초의 한국사 강좌 개설

한국 전공자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쉽지 않은 학문적 환경에서 맥쿤의 모교 버클리대학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1946년 버클리대학은 맥쿤을 극동학 전임강사로 초빙했다.¹¹⁾ 맥쿤은 극동외교사·한국사의 두 강좌를 맡아 강의했고, 강좌는 그가 사망하기 전 학기인 1948년 봄학기까지 개설되었다.

(1946.3.27.), 국사편찬위원회, 『駐韓美軍政治顧問文書』 19, 1994, 39~42쪽; 『Fahs to McCune』 (1946.4.9.), GMM Papers, Box 33.

7) 김경일, 앞의 논문, 1996, 233쪽.

8) 김접수, 앞의 논문, 2005, 153쪽.

9) 김왕배, 「'은둔의 왕국' : 한국학의 맹아와 선구자들」, 『정신문화연구』 22, 1999, 10쪽.

10) 『The Rockefeller Foundation - Postwar Fellowships in Humanities awarded in 1945』, Unclassified Collection, Box 4.

11) 『Deutsch of Berkeley to McCune』(1946.4.18.), GMM Papers, Box 33. 버클리대학교는 전후 극동 언어 및 극동 관련 교육과정 및 심화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중 하나였다. Cameron, Meribeth E, "Far Easter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Far Eastern Quarterly* 7, 1948, p.133.

〈맥쿤의 버클리대학 강좌 개설 기록(1946~1948)〉

학기	강좌번호	강좌명
1946년 가을 (1946.9~1947.2)	History 192A	극동외교사(Far Eastern Diplomatic History)
	History 292B	한국사(Korean History)
1947년 봄 (1947.2~1947.6)	History 192B	극동외교사(Far Eastern Diplomatic History)
	History 292B	?(한국사 강좌로 추정)
	History 197B	한국사(Korean History)
1947년 가을 (1947.9~1948.2)	History 192A	극동외교사(Far Eastern Diplomatic History)
	History 197A	한국사(Korean History)
1948년 봄 (1948.2~1948.6)	?	한국 세미나(Korea Seminar)

[출전] 〈University of California Calendar, 1947~1948〉, Unclassified Collection, Donated by Heather Thompson, Box 4; 〈McCune's History Courses at UC Berkeley〉 〈McCune Courses at UC Berkeley〉, McCune-Becker Collection, George McAfee McCune Papers, Box 38 참조.

당시 학생들이 동아시아에 보인 높은 흥미를 반영하듯, 1946년 가을에 개설한 극동외교사의 수강 신청 인원은 50명에 달했다. 극동외교사는 1947년 봄학기에도 55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¹²⁾ 강좌의 중심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가 극동에서 어떻게 세력을 획득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① 조선과 일본, 청이 각각 19C 후반-20C 초반 서구열강의 통상요구 및 침투에 대응한 방법 ② 일본의 중국 침략과 만주국 건설, 일본의 세력 팽창 ③ 일본의 조선 침략과 조선 병합, 당시 조선 정부의 외교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¹³⁾ 이 중 ②번 주제는 맥쿤의 석사학위논문¹⁴⁾과 일맥상통했다.

12) 〈History 192B〉(1947.4), McCune-Becker Collection, GMM Papers, Box 38.

13) 〈Far Eastern Diplomatic History - Assignment Sheet No. 3〉(1946.11); 〈History 192A - Second Midterm Examination〉(1946.12.17.); 〈Far Eastern Diplomatic History - Assignment Sheet No.1〉(1947.9); 〈History 192A - Far Eastern Diplomatic History - First Midterm Examination〉(1946.11.5.); 〈Far Eastern Diplomatic History - Assignment Sheet No.2〉(1947.10), GMM Papers, Box 38.

14) McCune, George M, *Manchuria as an Agent in Japan's Rise to Dominance in Asia(1931~1935)*, Occidental College, 1936. 맥쿤은 1930년대 일본의 팽창정책과 이를 촉진했던 일본인의 심리를 역사·문화적으로 고찰하려 시도했다. 비록 그가 규명하고자 했던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관한 주장 대부분은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시 일본이 내세우던 '아시아주의'라는 개념

한국사 강좌는 1946년 가을학기에 18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는 아니었으나, 강좌의 지속적 개설로 보아 일정 수 이상의 수강생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1946년 가을의 수강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는 대학원생이었는데, 한국학, 적어도 한국 관련 전공이 전문 연구인력들의 관심을 끌었음을 시사한다. 또 일부는 1945년 이후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다른 일부는 일본어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했다. 학생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어학적 흥미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맥쿤 역시 한국어 강습을 병행하고자 했다. 그는 강사 부임 전 버클리 측과 한국어 집중 강좌 개설을 논의한 끝에 최종 승인을 받았고, 적어도 1946년 가을학기에는 한국인 강사와 함께 한국어를 가르쳤다.¹⁵⁾

‘한국 세미나’를 제외하고 한국사 강좌는 3학기 동안 4번 개설되었다. 1947년 봄학기에 개설된 『History 292B』 강좌명이 명확하지 않지만, 1946년 가을학기 강좌번호로 미루어보아 이 강좌 역시 한국사 혹은 한국사 관련 강좌로 생각된다. 극동의교사보다 한국사가 포괄하는 시기가 더 넓었는데, 이는 물론 맥쿤이 한국사 전공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1947년 봄학기 강좌에서는 한국의 고대사부터 조선사까지를 분야별로 나눠 강의했다.¹⁶⁾ 맥쿤은 이를 위해 한국의 역사를 연대별/역사서별/특성별로 요약한 자료를 제작했고, 한국의 도자기 등 문화예술작품을 시기별로 구분해 소개하는 표를 만들기도 했다.¹⁷⁾ 1947년 봄학기에는 일제의 조선 침략 과정, 국권 피탈 과정, 일제하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주로 다뤘다.¹⁸⁾

한국사 강좌는 1948년에 일종의 심화 과정으로 발전했다. 1948년 봄학기

은 국내의 팽창욕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임을 지적했다.

15) <McCune to Graves>(1946.10.18.), Unclassified Collection, Box 4. 6명의 학생이 한국어 강좌를 신청하였고, 담당 교수는 맥쿤, 한국인 강사는 ‘Mr. Lee’였다.

16) <List of Suggested Topics for Special Study>; <Reading Assignment>, GMM Papers, Box 29.

17) <Early Korean History>; <Table for Korean Art>, GMM Papers, Box 38. 전자의 분량은 30쪽 가까이에 달한다. 한국 미술에 관한 표는 한국복식사를 전공한 부인 이블린의 도움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18) <List of Suggested Topics for Special Study>, GMM Papers, Box 29.

‘한국 세미나’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해 몇 가지 주제를 놓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¹⁹⁾ 앞서 언급했듯 강좌의 단독 개설 및 강의 방식의 변동은 한국사 강좌의 고정적 수요를 나타낸다.

2) 한국 관련 저술·기고

맥쿤은 종전 후 한국 관련 저술 활동에도 주력했다. 한국 정세에 대한 평론이나 한국을 소개하는 소논문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는 특히 1946~47년 사이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학술지에 투고했다. 빈번한 투고는 당시 미국의 극동학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양상이었다. 지역연구가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연구의 초점도 한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서술하려는 경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투고되는 주제도 변모하는 한국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었다.

맥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양한 주제로 많은 글을 투고했다. 한국의 급격한 정국 변화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의 글들이 주를 이루었다.²¹⁾ 그는 저술을 통해 한국의 동향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국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²²⁾

종전 후 맥쿤은 이미 책을 쓸 기회가 있었다. 1945년 9월 미국학술원(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이 지역연구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맥쿤에게 한국과 관련된 간단한 책을 내자고 제안한 것이다. 가제는 “한국 지역연구 입문자들을 위한 안내서(Introductory Guide to the Study of Korean Area)”였다.²³⁾ 당시 맥쿤은 국무부 일본과의 한국 담당

19) <Korea Seminar-Spring Semester, 1948>; <Korea Seminar>, GMM Papers, Box 38.

20) 김점숙, 앞의 논문, 2005, 168쪽.

21) McCune, “Russian Policy in Korea: 1895~1898”, *FES*(1945.9); “The Essential Unity of the Korean Economy”, *Korean Economic Digest* 3(1946); “Cities and Towns of Korea”·“Gold Mining in Korea”, *The Voice of Korea* 3(1946); “Occupation Politics in Korea”, *FES*(1946.2); “Korea: The First Year of Liberation”, *PA*(1947.3); “Post-War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The Journal of Politics* 9(1947); “The Korean Situation”, *FES*(1948.9);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in Korea”, *India Quarterly* 4(1948).

22) 김점숙, 위의 논문, 164~165쪽.

(Country Specialist)이었다. 그는 의욕적으로 이 제안에 호응했다.²⁴⁾ 그러나 이후 서한 교환이 지체되었고, 예산이 축소되어 작업 진행이 지연되었다.²⁵⁾ 이후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책자 출판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학술원이 얇은 책을 간행하는 예산조차 빠듯하게 조정된 사실은, 지역연구에서 한국학의 위상이 낮았음을 방증한다. 맥쿤은 1년 뒤인 1947년 태평양문제연구회(IPR)의 제10차 태평양회의에서 자료로 활용된 소책자를 간행했다. *Korea's postwar political problems*(한국의 전후 정치적 제문제)라는 제목의 56쪽 분량의 글이었다.²⁶⁾ *Korea Today*의 12장(분단된 한국, Divided Korea)의 내용은 해당 책자 내용을 개정·심화했다. 이 밖에 학술지에 기고한 다양한 글 역시 세부적인 수정을 거쳐 *Korea Today*에 포함되었다.

한편 맥쿤은 조·미 수교와 관련한 자료집 형식의 책을 발간했다.²⁷⁾ 책은 그의 사후인 1951년에 간행되었는데 정확한 탈고 연도는 알 수 없다. 그는 주한 미국공사관이 소장한 주요 외교문서 중 수교 이후 3년간(1883~1886)의 문서들을 선별해 엮었다. 맥쿤은 미국 외교관들이 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와중에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그 시도는 주한미국 공사 대리 포크(G. C. Foulk)의 사임과 본국 송환(1886)으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²⁸⁾ 주된 이유는 남북전쟁 이후 미 국무부의 역량은 극동 외교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침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맥쿤은 한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비효율적인 지침 혹은 때로는 아예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

23) 『Graves to McCune』(1945.9.29.), Unclassified Collection, Box 4.

24) 『McCune to Graves』(1945.10.16.), Unclassified Collection, Box 4.

25) 『Graves to McCune』(1946.3.16.); 『Graves to McCune』(1946.7.14.); 『McCune to Graves』(1946.7.5.), 『McCune to Graves』(1946.11.20.) Unclassified Collection, Box 4. 학술원 담당자는 맥쿤에게 ‘예산 축소는 별개로 일단 계속 집필해달라’고 부탁했다.

26) 고정휴, 『미국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 태평양문제연구회(IPR)과 그 기관지를 중심으로 -』, 『사충』 67, 2008, 108~109쪽.

27) McCune, George M. · Harrison, John A., *Korean-American relations :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1 The initial period, 1883~1886*,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28) Ibid, p.19.

서 근무했다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²⁹⁾ 후술하겠으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준비 부족을 비판하는 맥쿤의 기조는 *Korea Today*에서 해방 후 미국의 대한정책을 평가할 때도 적용되었다.

한국에 대한 맥쿤의 지식·전문성, 그리고 전쟁 전후 한국과 관련된 그의 적극적 학술 활동은 1940년대 미국 제도권 학계가 지역연구에 보인 관심과 맞물렸다. 특히 맥쿤이 *Korea Today*를 집필하던 1947~1948년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극동지역과 연관된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증설시키던 시기와 일치한다.³⁰⁾ 즉 *Korea Today*의 집필 및 출판은 단지 맥쿤의 개인적 연구 경력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3. *Korea Today*에 나타난 맥쿤의 한국 인식

1) 저술 동기 및 사료

*Korea Today*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맥쿤은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과 선입견 없는 해석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주요한 사실들을 드러내는 핵심 사료에 접근이 힘들며, 현재 분단으로 이념·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순히 한반도에서 미국·소련의 활동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이 전환기에 이뤄낸 발전을 명확히 보여주려고 *Korea Today*를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³¹⁾

맥쿤은 한국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을 논하며 우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책임지는 문제를 여태껏 “무시, 회피, 비난” 해왔으나 명백히 한국문제에 막대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29) Ibid, p.2.

30) Cameron, Meribeth E, p.128.

31) *Korea Today*, pp.ix~x.

전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 맥쿤의 일관적인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Korea Today*는 전근대 시기부터의 한국 역사를 서술한 후 이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 상황을 분석하는 개설서의 성격을 띠었다. 책은 정치/경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서 남한과 북한의 동향을 개별적으로 서술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2장에서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 및 식민지 시기를 다뤘다. 3장과 4장은 38선 분할과 이후 미·소의 점령정책을, 5장은 미국의 점령정책, 6~8장은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남한의 농업, 산업, 금융 등을 개괄했다. 9장은 소련의 점령정책, 10장과 11장은 소련의 계획경제에 대해 언급한다. 12장과 13장은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각국의 변동과 분단된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한의 상황과 미군정의 정책 분석이 서술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맥쿤이 접근 가능한 자료 대부분은 미국과 남한의 자료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국·남한의 자료는 공공기관 자료·개인 회고록 등을 다양하게 이용했다. 군정청 월간보고, 국무부와 육군이 생산한 보고서, 미국 내 한인단체들의 간행물 등 자료 활용 범위도 넓었다. 반면 소련·북한 사료의 이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소련 점령지역에서의 자료수집이 어려워 자료량은 필연적으로 불균형했다. 맥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언론인들의 보도 혹은 북한 주둔 소련 민정청 자료, 또는 소련과 관련한 북한의 일부 출간물 외에는 없었다.³²⁾ 책의 구조상 남·북한의 대칭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내용이 다소 불균형해진 점은 ‘미국 지식인’으로서 맥쿤이 마주한 한계였다.

전근대사 서술 부분에는 주로 일본 자료를 활용했다. 통계자료를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가 간행한 『朝鮮史大系』, 『朝鮮史』 등 관찬사료가 중심이 되었다. 맥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판 자료 이외에는 희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³³⁾ 부록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32) *Korea Today*, p.xi

33) 맥쿤이 인용한 일본 사료의 편증성에 대한 비판은 김서연, 앞의 논문, 2018, 260쪽 참고.

의 외교관계와 관련된 문서 중 맥쿤이 선별한 자료들, 한국 인구수에 대한 메모, 그리고 도표 자료이다. 그는 줄곧 한국과 관련된 자신의 저술에는 상당한 양의 참고문헌과 부록을 첨부했는데, 후학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었다. 이는 앞서 맥쿤이 이야기한 책의 집필 목적과 연결된다.

2) 전근대~식민지 시기 :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 비판

맥쿤은 식민지 시기 이전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립 구도로 설명하였다. 이 시각 자체는 과거 선교사 출신 미국인들의 견해와 유사하다.³⁴⁾ 맥쿤은 “부패한 지배층과 건강한 민중”으로 한국 사회를 둘로 분리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폐단은 조선 중기의 당파싸움이 낳은 분열이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³⁵⁾ 또 전제적 정부체제와 정부의 부패가 민중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를 빼앗아 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³⁶⁾

그는 한국은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농사가 수월하고³⁷⁾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아 조선 초·중기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문화적 발전을 이뤄냈지만,³⁸⁾ 개항기에 들어서며 정치적 퇴보로 이러한 긍정적 특성들이 급격히 쇠락했다고 지적했다.

전통시대에서 현대로의 전환기에, 한국 정치에서 두드러진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영향력들이었다. (1) 정부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을 외세의 지배에 광적으로 저항하게끔 이끌었던, 한국인들을 하나의 단일적 요소로 결집시킨 강력한 역사적·문화적 유대관계. (2) 사회와 정치기구에 만연하여 개혁을 방해했던 극단적 보수주의와 당파성. (3) 주권의 제한이라기보다는 독립성 유지의 안전장치로 여겨진 중국과의 전통적 유대관계. 위의 세 영향력들은 합병 이전 한국정치의 두드러진

34) 이수기, 『1880년대 한국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인식』, 『역사문화연구』 55, 2015, 106쪽.

35) *Korea Today*, p.14.

36) *Ibid.*, p.19.

37) *Ibid.*, p.10.

38) *Ibid.*, p.11.

성격이었다.

한국에는 뛰어난 정부를 갖고 문화적 성취를 이뤄낸 기간들이 많이 있었으나, 서양의 국제질서에 적응하려고 한 19세기 말에 조선은 분열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훨씬 전부터 조정에서 받아들인 유교적 원칙들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유동적인 정부라는 극단적인 결말로 나아갔다. 전제적인 규칙들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력은 성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백성들은 반동적이고 당파적인 관료들로 구성된 정부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일반인들이 민주적 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작은 마을이나 가족의 사회적인 범위 내에서뿐이었다.³⁹⁾

맥쿤은 위와 같은 정치적 낙후가 한국의 경제 발전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원래 조선에는 유럽의 자본주의와 같이 ‘크고 영향력 있는’ 상인계급의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있었으나, 유교적이고 전제적인 정부가 경제적 유동성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부패와 퇴폐는 경제적 발전을 저해했다. 경제적 부와 경제행위의 수단은 오래전 무력해진 귀족인 양반이나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 대부분은 토지에 종속된 사실상의 농노 상태였다. 절대주의 체제와 숨이 막힐 정도의 세금들, 강제적 징수, 사유재산의 극단적 불안정성을 동반한 급격한 제도변화는, 중세의 경제체제로부터 진화해온 유럽 자본주의처럼 꽤 크고 영향력 있는 상인계급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방지했다.⁴⁰⁾

한국 정치의 분열성을 강조하는 맥쿤의 주장은 일본 식민사관의 흐름과 맞닿는다. 앞서 언급했듯 맥쿤이 참고한 자료 대부분은 동경제대-경성제대-조선사편수회-조선사학회-청구학회의 ‘관학아카데미즘’적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⁴¹⁾ 당시 맥쿤이 관학아카데미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

39) Ibid, pp.14~15.

40) *Korea Today*, p.19.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에 관한 배경지식을 체계적·객관적으로 얻기 쉽지 않았으므로, '한국 전문가'로서 맥쿤의 역량은 이 부분에서 뚜렷한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

중요한 점은 맥쿤이 위와 같은 평가를 한국인의 기질 혹은 특성과 관련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헐버트·언더우드·알렌 등 선교사 출신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한 미국인들은 그들의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잠재력이나 계몽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는 한국인의 성품이나 특징에 대한 일반화를 동반했다.⁴²⁾ 또 다른 나라 국민을 기준 삼아 '상대적으로 봐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에 품평의 기준을 두었다. 이는 선교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이었다.

맥쿤은 한국 정치의 낙후성이 '능력의 부족·부재'가 아닌 '경험 부족'에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한국인의 특질을 그 어떤 기준에서도 단정 짓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한국 인식은 소위 이전 서구인들의 인식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맥쿤에게 한국인은 자신이 우세한 위치에서 평가할 대상이 아니었다. 맥쿤의 한국 경험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 2세'로서의 가계적 특수성이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지만, 결코 스스로 한국에서 '이방인'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⁴³⁾ 이는 친한·반한의 구분을 뛰어넘는, 맥쿤과 같은 인물들이 가지는 다층적 정체성을 시사한다.

맥쿤은 한국 정치의 미성숙에는 일본 식민통치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언론자유, 참정권, 대의 정부 등 서구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라고 썼다.⁴⁴⁾ 맥쿤은 일본이 독립하려는 한국인들의 의지·열망을 파괴하지는 못했지만 원래 존재했던 당파주의를 심화

41) 김중준, 『식민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출판, 2013, 26~27쪽.

42) 이수기, 앞의 논문, 99·105·112쪽. 예를 들어 알렌은 한국인들이 절약심이 없다고 하였고, 헐버트는 한국인이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라고 기술했다.

43) E-mail Interview with Heather McCune Thompson(2015.8.23). 헤더 톰슨은 맥쿤의 차녀로, 이메일 인터뷰에서 "부모님(맥쿤과 이블린)은 스스로 미국인으로서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44) *Korea Today*, p.27.

시켜 독립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고 한국인의 정치적 책임감을 약화하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하였다.⁴⁵⁾ 그러나 식민지배가 종식된 후 한국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조선인의 문맹률이 아주 낮았다는 데 기인한다.

황국의 신민으로서 조선인들을 교육하고 조선적 정체성을 없애려고 한 일본의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는데, 이는 조선어 사용 금지를 위시한 일본의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이다.⁴⁶⁾

식민지 경제의 착취성도 맥쿤의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그는 일본이 남긴 경제적 유산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예측적” 경제체제이며, 한국인의 경제적 독립은 정치적 독립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⁴⁷⁾ 즉 식민지배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명백히 수탈적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는 일본의 공업 성장과 쌀 조달 등을 위해 한반도가 활용된 것은 한국인들을 경제적으로 차별하고 소외시켰다고 비판했다.⁴⁸⁾ 맥쿤은 일본의 지배 당시 자본투자가 늘어난 것 등은 민족경제의 구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⁴⁹⁾ 맥쿤의 시각에서 식민통치는 단지 한국인들을 행복한 삶에서 완전히 유리시킨 것뿐이었다.⁵⁰⁾ 그는 일본의 산업발전으로 경제적 혜택을 본 것은 극소수뿐이며,⁵¹⁾ “한국은 식민통치의 목표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혜택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평가했다.⁵²⁾ 같은 맥락에서 그는 식민통치가 남긴 것은 생산구조의 완벽한 붕괴와 극심한 기아였다고 비판했다.⁵³⁾

식민통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맥쿤의 견

45) Ibid, p.28.

46) *Korea Today*, p.27.

47) Ibid, p.40.

48) Ibid, p.29.

49) Ibid, pp.22~23.

50) Ibid, p.31.

51) Ibid, p.29.

52) Ibid, p.37.

53) Ibid, p.40.

해는 사회주의 경제학자였던 그라즈단제브의 주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⁵⁴⁾ 아울러 맥쿤의 주장은 추후 1980년대 라이샤워를 필두로 형성되어 미국 한국학을 지배한 '근대화론'⁵⁵⁾과도 일련의 거리가 있었다. 라이샤워는 한국의 근대를 전근대와 단절시키고 철저하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전제했는데, 이 분석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틀을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근대화론이 맥쿤의 사망 이후 논의되었다는 시대적 차이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식민통치를 보는 맥쿤과 라이샤워의 시각이 달랐던 핵심적 이유는 물론 한국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나 이해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3) 한반도에 수립될 정치체제 구상

맥쿤은 해방 후 한국에서 수립되어야 할 정부 형태는 반드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앞서 언급했듯 맥쿤은 미국이 남한에서 신임을 잃을 것을 굉장히 우려했다. 특히 맥쿤은 소련이 한반도의 이해관계에 개입한 이래 대한정책에서 미국이 저지르는 '실패'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지지'를 미국의 한반도 이해관계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당시 대한정책의 집행 주체인 군정의 방향과는 전면적으로 대치됐다. 따라서 맥쿤의 시각에서 군정의 정책이 실패로 얼룩져 보임은 당연한 흐름이었다.

맥쿤은 먼저 미군정이 해방 이후 남한 정치기구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⁵⁶⁾ 해방으로 획득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남한에는 각종

54) Grajdanzev, Andrew J., 이기백 역, 『韓國現代史論』, 일조각, 1973, 47쪽.

55)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 전후 미국의 지역 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 2012, 101쪽; 홍순권, 「미국 역사학계의 한국근현대사 연구 실태와 연구 경향: 일제시기의 식민국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 2002, 281쪽.

56) *Korea Today*, p.47.

정당이 난립하여 혼란스러웠다. 한국인들은 미·소 점령체제를 불신하기는 했으나 개별 정치단체들은 은근히 미군정의 신임을 바라고 있었다.⁵⁷⁾ 미군정은 명목상 중립을 유지했지만, 1945년 12월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이후 신탁통치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을 때 미군정이 선택한 세력은 이승만이 이끄는 우파 정당인 한국민주당이었다.⁵⁸⁾ 이는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던 대중의 선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미군정은 몇 주 후 “미국의 인기가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들어야만 했다.⁵⁹⁾ 맥쿤은 전쟁기 재미 한인 독립운동세력과 교섭할 때에도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던 바 있다. 맥쿤은 이승만이 한국에 세력 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⁶⁰⁾ ‘분열을 일으키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한국인들의 신임을 얻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⁶¹⁾ 그가 보기에 미군정의 이승만 선택은 비합리적이었다.

또 맥쿤은 미군정이 남한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과도하게 탄압함으로써 중도파들의 지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우익세력에 대한 미군정의 전면적 지지와 공산주의자·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은 남한 경찰과 청년단체의 비인륜적 잔혹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기도 했다.⁶²⁾ 맥쿤은 1947년 7월 여운형 암살을 기점으로 8월~10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찰과 우익청년단체의 위법행위가 꾸준히 있었으나, ‘테러리즘 반대는 거리낌 없이 말하던’ 미군정이 정작 우익단체의 소요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맥쿤은 이러한 정책이 민주적 요소들을 모호하게 만들어 중간파들이 공산 진영으로 이탈하게 될 가능성을 걱정했다.⁶³⁾

중간파에 대한 맥쿤의 긍정적 평가는 좌우합작운동과 과도입법위원 관련 서술에서 더 명확해진다. 그는 비록 과도입법위원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57) Ibid, p.49.

58) Ibid, p.50.

59) Ibid, p.51.

60) <Note on Conversation Wednesday evening at home, with Yi Chimook>(1942.06.03.), GMM Papers, Box 19.

61) <Comment on report from San Francisco Office, March 27, 1943, “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 by Clarence N. Weems, Jr.>(1943.3.31.), GMM Papers, Box 20.

62) *Korea Today*, p.87.

63) Ibid, p.88.

한국인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었으며, 과도입법위원 활동을 통해 한국의 애국자 중도파들이 역량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했다.⁶⁴⁾ OSS에서 한인통합을 목적으로 한인들과 교섭했던 맥쿤의 경험은 극단적인 좌·우 세력보다는 중간파에 심정적 지지를 보내게 했다.

한편 맥쿤은 한반도에 궁극적으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 자유주의 지식인으로서 사고했다. 맥쿤은 소련 체제를 고도의 선전술로 인식했다. 그는 소련이 인민위원회를 위시해 한국인을 내세우고 실권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배후에서 인민위원회를 조종한다고 비판했다.⁶⁵⁾ 아울러 북한 거주민들이 소련 지배에 늘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단지 소련과 그 꼭두각시 지지 세력의 선전 때문이라고 했다.⁶⁶⁾

맥쿤은 남한에서 우익세력이 영향력은 더 클지 몰라도, 대중이 '혁명적 농업·산업개혁을 주장하는' 좌익세력에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⁶⁷⁾ 때문에 맥쿤은 미·소의 3년 분할점령은 한반도에 내린 재앙이라고 썼다. 맥쿤은 단순히 38선이 한국인들의 동질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⁶⁸⁾ 그는 분할점령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을 걱정했다. 그는 미군정의 경제정책, 특히 미곡수집이 전면적 실패를 거뒀다는 것을 지적하며 “농민들이 땅에 대한 압박을 버리게끔 하는” 산업화를 달성해야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⁶⁹⁾ 그러나 분단상황에서 유기적인 산업화는 구조적으로 어려웠으므로, 맥쿤의 임시적 결론은 현재 어떤 개혁도 농촌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남북한 모두 정상적 생활 수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64) *Korea Today*, p.84.

65) *Ibid.*, p.52.

66) *Ibid.*, p.3; p.6.

67) *Ibid.*, p.90.

68) *Ibid.*, p.52.

69) *Ibid.*, p.139.

반드시 경제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⁷⁰⁾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도입 후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맥쿤의 주장에서 그의 ‘미국 제도권 지식인’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맥쿤은 당연하게도 북한에서 진행되는 토지구유화나 토지분배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국유화가 근본적으로 인민의 생산 의욕을 낮추며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⁷¹⁾ ‘북한에서 농민들이 토지를 분배받은 후 내야 하는 세금이 이전 소작료와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추산되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명확히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맥쿤의 입장을 잘 설명한다.⁷²⁾ 토지구유화에 대한 맥쿤의 회의적 인식은 과거 그가 그라즈단제브의 『현대한국』에 관해 쓴 서평에서부터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맥쿤은 그라즈단제브가 한국 경제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협동체적 국가’(토지와 공장은 국가가 소유, 경영은 농민·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에 위임) 구상이 종합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⁷³⁾ 그는 조선인들이 식민지 시기 일본 통치 아래서 운영되었던 협동조합에 보인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⁷⁴⁾

즉 한반도에 수립될 체제에 대한 맥쿤의 사고는 이상적 정치·경제체제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한정되었으며, 이 지점에서 그는 전형적인 미국 제도권 지식인의 면모를 보였다.

4)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상적 전망

*Korea Today*가 집필된 시점에서는 이미 사실상 남북한 양측에서 단정 수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다. 1948년 8월과 9월 남한과 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다. 맥쿤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미·소는 한국을 둘러싼

70) *Korea Today*, p.56.

71) *Ibid*, p.189.

72) *Ibid*, p.207.

73) McCune, “Review: Modern Korea by Andrew J. Grajdanzev”, *PA*, 1945.3, p.104.

74) *Korea Today*, p.129.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행동하리라고 예측했다.⁷⁵⁾ 맥쿤은 이 지점에서 미국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그의 시각에서 소위 '현상 유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1945년 미국이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남한에 진주함으로써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맥쿤은 '35년 동안 정치적으로 죽었던 국가에서 실행 가능한 민주주의를 일구려면 점령군의 준비보다 훨씬 많은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비단 점령군의 정책 부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 부재라고 비판했다.⁷⁶⁾

맥쿤의 근본적 우려는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영구히 고착되는 데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전쟁이었다. 맥쿤은 38선이 '피로 물든 내전'을 거쳐야만 해소되고, 소련의 압박이 완화되지 않거나 일본이 재건될 경우 한국인들의 독립 기회는 이미 소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예견했다.⁷⁷⁾ 한국 전쟁은 맥쿤 사후 발발하였으나,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로 되는 시점에서 그는 이미 한반도에 닥쳐올 미래를 은연중에 예감했다.

하지만 맥쿤은 한국의 이상적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최종 희망은 통일국가 결성이었다. 맥쿤은 한국인들에게서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보았다. 한국인들에게는 충분한 책임감이 있고, 스스로 결점을 알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분투하고 있고, 아울러 근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긴축정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남북한의 적대감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이 타개되리라고 전망했다. 또 미소관계의 개선이 있으면 한국은 그 무대가 됨으로써 분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맥쿤의 통일 전망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국에서 확대되기를 원하는 미국의 정책과 대척점에 있었다. 실제로 1947년 한국문제가 UN으로 이관된 이후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또 앞서 언급했듯 맥쿤도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가 통일을 강조한 이유

75) *Korea Today*, p.271.

76) *Ibid.*, p.269.

77) *Ibid.*, p.7.

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면 한국인들이 ‘결정적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높으므로 통일에 대한 열망과 행동을 멈추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⁷⁸⁾ ‘한국인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한국인들에 대한 심정적 공감과 투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Korea Today*에 나타난 맥쿤의 한국 인식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맥쿤은 전후 미국 제도권 학계의 지식인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미국 체제의 우수함이나 미국의 동아시아 헤게모니 확보에 있어 소련의 팽창 혹은 체제 확장을 경계했고, 소련 체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둘째, 한국인들의 행복이나 만족도를 고려하는 맥쿤의 경향에서 ‘유년기 한국 경험’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한국·한국인들에 대한 맥쿤의 높은 수준의 이해도는 기존 한국에 체류했던 미국 선교사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질적 차이를 부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는 단순히 ‘친한파’라는 기존 분석 틀에 맥쿤을 포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맥쿤처럼 유년기 한국 경험을 보유한 인물들과 그들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미국 학계에서 *Korea Today*의 의의

*Korea Today*는 크게 3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로 한국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시기에 발간되어 사람들의 흥미를 제고시켰으며, 한국학 연구의 공백을 메웠다. *Korea Today*가 출간된 1950년 5월은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부터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시기였다. 맥쿤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이 시기 한반도는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완전히 냉전체제에 편입되었다. 해방정국처럼 급격한 정세 변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 사회 전반에서 한국에 관한 관심

78) Ibid, p.272.

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당대 극동 연구자들이 주로 투고하던 *Far Eastern Quarterly*·*Far Eastern Survey*·*Pacific Affairs*에도 1948년 9월부터 1950년 11월까지 기고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⁷⁹⁾ 또 버클리대학은 맥쿤이 강의하던 한국어·한국사 강좌를 중단했고, 미국 대학에서는 이후 1952년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센터 수립 전까지 한국 관련 강좌를 개설한 바 없다. 이 역시 한국에 대한 흥미 저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이다.

이렇듯 한국학에 대한 수요나 그와 관련한 투고가 많이 없는 시점에서 *Korea Today*가 간행되었다. 맥쿤은 상기한 *Korea's postwar political problems*를 발간하면서 IPR과 본격적 인연을 맺었고, 이후 국제연구프로그램의 하나로 *Korea Today*를 집필했다. 미국의 지역연구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은 시기를 불문하고 높지 못했기 때문에, IPR의 연구 지원 혹은 출판 제안은 당시 동아시아 연구자들에게 있어 안정적이고 명망 있는 후원이었다. 맥쿤도 IPR의 학문적 명성과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일단 IPR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술은 저자의 주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기제였다. 또 한국 관련 저술이 극히 저조했던 1950년임에도 불구하고 *Korea Today*의 출판을 학술서적 발행에 위상이 높았던 하버드대학교 출판부가 담당했다는 사실은, 맥쿤의 전문성과 학술단체로서의 IPR의 권위, 그리고 *Korea Today*의 의의 모두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사료의 활용·검증 측면에서 '한국 전문가가 쓴 역사 개론서'라는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IPR이 편찬한 또 다른 한국 관련 학술도서 그라즈단제브의 『현대한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나타난다. 그라즈단제브의 경우 경제학 석사학위 소지자였다. 따라서 『현대한국』에도 많은 통계자료가 삽입되었다. 그라즈단제브는 조선총독부·일본 정부가 편찬한 관찬사료를 이용하였는데, 《朝鮮施政年報》를 비롯하여 《朝鮮年鑑》, 《朝鮮金融組合年鑑》, 《朝鮮經濟年報》 등에 게시된 통계가 주요 자료이다. 또 이훈구의 『한국에서의 토지 이용과 농촌경제』(1936), 일본 경제학자들의 조선 경제 전문서적

79) 김점숙, 앞의 논문, 2005, 164~165쪽.

이 활용되었다. 한국의 역사나 대외관계 관련 서적도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핵심 사료는 아니었다. 이는 『현대한국』이 갖는 결정적인 한계였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한문 사료를 해독할 수 없던 그라즈단제브는 번역된 저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오로지 특정 자료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교차검증이 불가능했다.⁸⁰⁾ 물론 『현대한국』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책이라는 평가는 비약이겠으나, 다만 자료적 측면에서 『현대한국』을 역사 개론서라고 칭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한국어에 유창했던 맥쿤은 한국어 사료를 해독·이해할 수 있었고,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그라즈단제브보다 넓었다. 맥쿤 자신도 *Korea Today*를 개설서이자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들은 전쟁 발발 이후 한국에 투영된 소련의 정책이나 의도를 이해하는 지표로서 *Korea Today*의 의의를 평가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Korea Today*를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한 책’으로 인식했다.⁸¹⁾ 역사학자이자 위스콘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프레드 해링턴(Fred H. Harrington)은 *Korea Today*를 “훌륭한 개설서이자 자료집”이라고 평가했다.⁸²⁾

마지막으로 *Korea Today*의 집필로 인해 미국 한국학의 출발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점이다.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초반 한국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백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한국학의 시작 시점을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Korea Today*의 출판과 맥쿤이라는 한국 전문가의 존재는 한국학의 출발점이 종전 직후임을 짐작케 하는 요소가 된다.

80) 그라즈단제브도 서문에서 한계를 인정하였다. 그는 “조선총독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고, 일본 보고서의 외국 반출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한국에 관한 최근의 저서가 없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그라즈단제브가 한국어 사료를 해독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Grajdanzev, Andrew J., 이기백 역, 앞의 책, 1973, 5쪽.

81) Eulau, Heinz, “Review : Korea Today by George M. McCune”, *The Antioch Review* Vol. 10, No.3, p.426.

82) Harrington, Fred H. “Review : Korea Today”, *FEQ*, 951.8, p.402. 프레드 해링턴은 한국에서 ‘開化期の韓美關係 : 알렌 博士의 活動을 中心으로’로 번역된 *God, Mammon, and the Japanese :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의 저자이다.

이 밖에 *Korea Today*의 사학사적 의의를 더 자세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매 부수 및 배포 현황을 파악해야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Korea Today*가 하버드대학교 출판부 외에 영국의 Allen & Unwin 출판사에서 1950년 간행되었다는 점이다.⁸³⁾ 아직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차후의 과제로 삼겠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Korea Today*에 나타난 조지 맥아피 맥쿤의 한국 인식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전후 맥쿤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 관련 강좌를 개설한 것에 주목했다. 또 맥쿤이 한국과 관련한 저술들을 활발히 기고한 사실을 다뤄, 그가 *Korea Today*를 집필하기 이전에도 태평양전쟁 종료 후 한국학을 미국 학계에 정착시키려고 꾸준한 학문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했다.

*Korea Today*는 전후 미국의 한국학도 중국학·일본학에 비견되는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보유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아울러 '한국 전문가'로서의 맥쿤의 역할은 *Korea Today*가 학술서적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전후 맥쿤이 보유한 한국에 대한 전문성과 *Korea Today*의 간행 시점·내용·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orea Today*는 '제1세대 한국학자가 집필한 첫 한국사 개설서'의 수식어를 달기에 부족함이 없다.

맥쿤의 한국 인식은 미국 제도권 지식인의 사고와 한국·한국인에 대한 심정적 동조가 혼재되어있는 다층적 면모를 보인다. 맥쿤의 한국 인식의 특수성이 유년기 한국 경험에서 나온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맥쿤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다른 '제1세대 한국학자'들의 한국 인식도 함께 살펴봐야 더욱 포괄적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는 '제1세대 한국학자'에 포함되

83) McCune, George M, *Korea Today*, London : Allen & Unwin, 1950.

는 인물들을 분류한 뒤 그들의 활동과 한국 인식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한국학의 계보를 거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문제로 둔다.

■ 참고문헌

- McCune-Becker Collection, George McAfee McCune Papers, Box 19 · 20 · 29 · 33 · 38.
Unclassified Collection, Donated by Heather Thompson, Box 4.
- 국가보훈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재미한인자료』 上, 2005.
국사편찬위원회, 『駐韓美軍政治顧問文書』 19, 1994.
- 김종준,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아카데미즘』, 소명출판, 2013.
안종철,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 Henderson, Gregory, 이종삼 · 박행웅 역,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2013.
Reischauer, Edwin O., 이광섭 역, 『일본근대화론』, 소하, 1997.
Grajdanzev, Andrew J., 이기백 역, 『韓國現代史論』, 일조각, 1973.
- McCune, George M, *Manchuria as an Agent in Japan's Rise to Dominance in Asia(1931~1935)*, Occidental College, 1936.
_____, *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 University of California, 1941.
_____,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McCune, George M. · Harrison, John A.,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1. The Initial Period, 1883~188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 고정휴, 『미국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태평양문제연구회(IPR)과 그 기관지를 중심으로-』, 『시총』 67, 2008.
_____, 『A. J. 그라즈단제브와 《현대한국》』, 『한국사연구』 126, 2004.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사회와 역사』 4, 2003.
김서연, 『조지 맥아피 맥쿤(George McAfee McCune)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사연구』 161, 2018.
김왕배, 『'은둔의 왕국': 한국학의 맹아와 선구자들』, 『정신문화연구』 22, 1999.
김점숙, 『해방 이후 미국 지식인의 한국 인식』, 『역사와 현실』 58, 2005.
안종철,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 조지 M. 맥쿤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2009.
이수기, 『1880년대 한국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인식』, 『역사문화연구』 55, 2015.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 2012.
조지형,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흐름과 전망』, 『미국사연구』 15, 2002.
홍순권, 『미국 역사학계의 한국근현대사 연구 실태와 연구 경향: 일제시기의 식민국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 2002.

An, Jong-Chol, "Making Korea Distinct : George M. McCune and His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7, 2004.

Cameron, Meribeth E, "Far Easter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Far Eastern Quarterly* 7, 1948.

Eulau, Heinz, "Review : Korea Today by George M. McCune", *The Antioch Review* Vol. 10, No.3,

Harrington, Fred H. "Review : Korea Today", *Far Eastern Quarterly*, 1951.8.

The view of a 'First Generation of Korean Scholar' of America on Korea around Liberation

– Through *Korea Today* by George McAfee McCune –

Kim, Seo-Yeon*

This article examines George McAfee McCune's view on Korea through his book *Korea Today*. After WWⅡ, McCune wanted to establish himself as a "first-generation Korean scholar" in American academia based on his academic expertise. Around war time, he put a lot of effort to make U.S. get interested in Korea. Although researches in the U.S. Area Studies had little interest in Korea, McCune tried to secure his own territory as a Korean scholar. He suggested to the Far Eastern Bureau in the State Department to open a new program for training experts in Korean issues, and lectured on Korean history, Far East diplomatic history, and Korean for three years before his death at his alma mater University of Berkeley. He also contributed many articles to the journal(FEQ, FES, and PA) on various topics related to Korea. Meanwhile, he published a book dealing with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 - Korea Treaty of 1882. The publication of *Korea Today* was not only for as a historian, but also related with the interest of American institutional academia in Area Studies in the 1940s.

In *Korea Today* he analyz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Korea, which was divided after after liberation. Even though the structure of the book

* Ewha Womans University

requires a symmetrical analysis of the South and the North, overall, the analysis of the situation is mainly about the South Korea and the policy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t was McCune's limitation as an "American intellectual" that the contents were disproportionate because resources from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were inaccessible for him.

McCune argued that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on Korea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underdeveloped Korean politics was preventing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McCune, however, if missionaries had lived in Korea long enough to analyze analyzed the divisiveness of Korean politics by linking it to the temperament of Koreans, it would be clear that it was not a lack of ability but a lack of experience. Regard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o be established on the Korea, he maintained his belief that ultimately, after the introduction of capitalism, the transition to industrial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merican-style free democracy should be established, which shows the aspect of intellectuals from the America's institutions. Meanwhile, McCune argued that unification would be essential for Koreans to be happy, reflecting his emotional sympathy for them.

Korea Today was published in the early 1950s when the U.S. academic interest in Korea was low, raising people's interest and filling the gap in Korean Studies. It also solidified its status as a "History book written by the Korean expert" in terms of the use and verific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In addition, the publication of *Korea Today* suggests that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studies in the U.S. will be moved from early 1950 to right after the end of the WW II.

McCune's view on Korea shows a multi-layered aspect of the thoughts of intellectuals in the American institutional academia and the emotional sympathy for Korea and Koreans.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unique features of

McCune's view on Korea derived from his experience in Korea when he was young, it is necessary to analyze comprehensively the views on Korea of other "first-generation Korean scholars" who have similar experiences with McCune is necessary. This article to look beyond the existing dichotomy between pro-Korean and anti-Korean, and to examine the various identities of characters like McCune.

Key words : George McAfee McCune, Area Studies, Korea Today, Far Eastern Studies, Korean Studies

